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주요은행의 양호한 3/4분기 실적,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 우려를 완화
 -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논의는 시기상조
 - 미국 10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고용회복 시사
 - 영란은행 위원, 일시적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금리인상은 불필요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주가 상승 지속
주가 상승[+1.7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하락[-3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및 주간 고용지표 등으로 투자심리 개선
 유로 Stoxx600 지수는 기업이익 증가 기대 등으로 1.2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주가상승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
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, 엔화는 0.4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 둔화 등이 배경
 독일은 금년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으로 6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3.1원, -4.6원) 0.4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0/14일	10/13일	전일대비			10/14일	10/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38.3	4,363.8	1.71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1%	1.54%	-3bp
	유럽	465.92	460.39	1.20%		독일	-0.19%	-0.13%	-6bp
	중국	3,558.3	3,561.8	-0.10%	CDS 5y	한국	21bp	22bp	-1bp
	일본	28,551	28,140	1.46%		중국	53bp	56bp	-3bp
	한국	2,988.6	2,944.4	1.50%	위험 지표	EMBI+	-	378	-
환율	달러지수	93.99	94.08	-0.10%		VIX	16.86	18.64	-9.55%
	유로화	1.1597	1.1594	0.03%		WTI유	81.31	80.44	1.08%
	엔화	113.68	113.25	-0.38%	원자재	구리	461.0	451.6	2.07%
	위안화	6.4397	6.4284	-0.18%		금	1,795.9	1,793.0	0.16%
	원화	1,186.8	1,193.8	0.5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요은행의 양호한 3/4분기 실적,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 우려를 완화

- 씨티그룹, BofA 등 주요 은행의 이익이 전년동기비 20~50%대 증가. 부문별로는, 투자은행 사업부문(인수합병, 자문 등)의 이익이 기록적으로 늘어났으며, 이는 많은 기업들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
- 씨티그룹이 발표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비 20% 증가하는 등 가계의 소비활동 역시 매우 활발한 것으로 확인. 대출부문의 경우 은행마다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발표했지만,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
- Brandywine 자산운용의 Patrick Kaser는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언급. Wells Fargo의 Charles Scharf도 가계의 부채비율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여 향후 경제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논의는 시기상조

-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으로 갈수록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.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현 상황에서 고물가 상황의 지속 여부 판단이 어려우며, 금리인상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
- 반면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는 최근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추세가 우려되며, 이를 고려할 때 신속한 테이퍼링 시행에 나서야한다고 강조

■ 미국 10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고용회복 시사

- 노동부에 따르면, 지난 주 해당 건수는 29.3만건으로 예상치(31.6만건)를 하회하여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이 재확인.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평가

■ ECB 총재,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요인에 기인

- 라가르드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언급. 하지만 네덜란드 중앙은행 놏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예상을 상회할 수 있어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

■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, 금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 하향 조정. 2022년은 상향

- RWM, DIW, IFW, IFO, IWH 등 5개 경제연구소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.4%로 이전(3.7%) 대비 하향. 내년은 이전(3.9%) 대비 상향된 4.8%로 제시. IWH는 필요 인력 부족, 소비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둔화를 예상

■ 영란은행 위원, 일시적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금리인상은 불필요

- 텐레이로 위원은 통상적으로 에너지 혹은 반도체 가격의 급등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. 캐서린 만 위원 역시 시장에서 미국과 영국이 통화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, 금리인상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고 언급

■ 중국 9월 생산자물가, 전년동월비 10.7% 올라 1996년 이후 최고 수준

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전월(9.5%) 및 예상치(10.5%) 상회. 전력난과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이 주요 원인.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중국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총리,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

- 다만 리커창 총리는 원자재 가격 및 운임료 상승 등 대외 여건의 불안정이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. 한편 인민은행 이강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언급

■ 국제 에너지 기구(IEA), 세계 경제는 에너지 부족 등으로 회복세 둔화될 가능성

- 에너지 가격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산업활동 둔화 등으로 연결되어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. 다만 에너지 부문의 산업활동은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1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생산자물가(전년동월비): 8.6%, 8월(8.3%), 예상치(8.7%)
- 중국 9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): 0.7%, 8월(0.8%), 예상치(0.9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1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강연, 9월 소매매출, 10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 은행권, 양호한 실적 불구 높은 수익 유지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** - Financial Times
(US banks: whatever the entry barriers, incumbents face asymmetric profit scrutiny)
 - Morgan Stanley는 M&A 자문, JPMorgan은 신용카드 및 모기지사업, BofA는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에 큰 비중을 두며, 은행 간 수익구조에 차이가 발생. 한편, 은행들의 양호한 3/4분기 실적은 모든 대형은행이 건전하다는 신호를 반증
 - 하지만 기술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이들에게 과제를 부여. JPMorgan의 Jamie Dimon 회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마든지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지속적인 기술 투자 비용 증가를 암시
 - 아울러 우수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급여 인상, 큰 폭으로 증가했던 수수료 수입의 감소 가능성 등 향후 비용증가와 수입감소 요인이 산재. 이는 은행권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. 이에 은행들은 고수익 유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
- **미국의 공급우위 노동시장, 생산성 등에 긍정적 영향** - 블룸버그
(Workers Who Quit Their Jobs Could Improve U.S. Productivity)
 - 미국에서는 구인난 속에서 노동자의 선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. 아울러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, 기존 노동시장 구도가 전환될 여지도 상당
 - 2/4분기 GDP는 팬데믹 직전이던 '19년 4/4분기 대비 일자리 감소 불구 당시 수준을 상회. 2000년대 이후 만성적 설비투자 저하, 저임금, 저생산성이 지속되어왔으나 임금상승이 창조적 파괴로 이어져 저생산성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
- **중국 정부, 정치적 목표 달성보다 주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** - Financial Times
(The real question about China for investors)
- **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,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영향력** - WSJ
(What Wild Natural Gas Prices Mean for Inflation)
- **신흥국 부채, 중국 부동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중고로 추가 피해 대비가 요구** - 블룸버그
(It's a Very Bad Time to Be in Emerging-Market Deb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